

모발 굵기에 따른 고객유형

조병순 · 정현진 · 김성남[†]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Customer's Type Depending on Hair Thickness

Byung-Soon Cho · Hyeon-Jin Jeong · Sung-Nam Kim[†]

Dept. of Beauty Arts, Seokyeong University

(2007. 1. 26. 접수/2007. 4. 12. 채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provide a satisfying beauty service to customers b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hair thickness on personality and attitude of hair style. It executed a survey of customers within the age of 20~40 who come and go to beauty salons, dwell in Kyeong-gi and Seoul. First, it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blood types depending on hair thickness. Second, it investigated how hair thickness affects on types of personality. Third, it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hair style attitude depending on hair thickness. We picked normal hairs for mineral test from our salon customers of the occipital region, except coloring hairs, white hairs. The hairs were picked 2 cm off from the scalp. In the result, many people with thick hair were found to have the blood type O, and many people with thin hair were found to have the blood type A. Also, in the types of personality the owners of thick hair and thin hair were highly found to have characters of both sexes, the owners of normal hair were highly found to have feminine characters. Many of the owners of thick hair appeared to prefer short hair styles, a high percentage of the owners with thin hair appeared to have long hair styles, A type people who are introspective prefer soft and long hair styles which have less movement.

Key words: Thick hair(굵은 모발), Thin hair(가는 모발), Personality(성격), Blood types(혈액형), Hairstyle(헤어스타일)

I. 서 론

모발은 신체의 일부로서,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신체에 필요치 않는 수은, 비소, 아연 등의 중금속을 흡수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모발의 건강은 체내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모발은 미의 상징으로서 장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미적 표현과 개성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본인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원하며, 주로 두상과 모발의 형태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김방순, 조미경, 장승호(2000)¹⁾의 연구에 따르면, 머리카락의 굵기와 성격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머리카락의 굵기나 형태가 혈액형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명숙(2001)²⁾은 머리카락이 굵은 사람은 강직한 스타일로 모든 일에 열의를 다하는 성실함이 돋보이나, 반면 머리카락이 가는 사람은 소극적인 성격으로 차분하고 온화하지만 인내력과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Sung-Nam Kim
E-mail: idohair@hanmail.net

이필석(2003)³⁾의 연구에서는 내향적인 성격은 소심하고 비사교적이지만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이며, 외향적인 성격은 기획력은 없더라도 행동력이 강한 면이 많다고 한다.

융(Jung, C, 1887~1900)은 무의식에서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구별하여 설명하면서 원형론(persona, anima, animus, shadow, self)을 제시하였다. 원형(archetype)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균형 있게 통합되어 각 상황마다 억압됨이 없이 자신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보편적인 성격(universal personality)이라고 하였고 이런 수준까지 자아가 실현된 사람을 개별화(individuation)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최근의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됨에 따라 다(多)역할과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하여 성격형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⁴⁾.

헤어스타일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직종, 성별, 나이대별로 정형화되었던 헤어스타일이 현대에는 개인주의가 혼합된 ‘퓨전(fusion)’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헤어스타일로 흐름이 정착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현대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다방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있어서 헤어스타일을 제외하면서 토털 패션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위해서 건강한 모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의 건강한 이미지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에는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각자의 개성이 퓨전으로 혼합된 양상을 보이면서도 사회, 문화의 흐름에서는 하나의 가닥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다. 고객의 모발의 굵기나 형태에 따라서 개개인의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헤어스타일 태도도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미용실을 내왕하는 고객을 대할 때 고객의 머리카락 굵기와 혈액형에 대해 연구를 하고 고객을 파악한다면 그에 맞는 미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고객 감동 뿐 아니라 재방문으로 이어져 실질적 마케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머리카락 굵기와 형태에 따른 성격유형과 헤어스타일 태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미용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모발의 정의 및 굵기의 종류

모발이란 포유류 특유의 부속기관으로 단단하게 밀착된 각화세포로 이루어진 고품의 원추섬유이다. 털이 난 부위에 따라 두발, 수염, 액모, 음모, 체모 등으로 구분된다⁵⁾.

모발의 굵기에 따른 종류에는 취모, 연모, 경모, 종모 등으로 나누어진다.

취모는 굵기 약 0.02 mm로 배냇머리라고도 하며, 태아시기에 형성되어 임신 8개월 차에 연모화된다. 연모는 0.05~0.08 mm 이하로 모수질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갈색의 색상으로 사춘기 이전의 모발이며, 탈모 진행형 모발에서도 볼 수 있다. 경모는 0.15~0.20 mm 정도로 단단한 단백질이 결합된 상태로 30대 이후 점차적인 연모화가 이루어진다. 굵기에 따라서 장모(長毛)는 두발, 수염, 겨드랑이 1 cm 이상, 단모(短毛)는 눈썹, 코털 등 1 cm 이하의 털이다. 종모는 연모에서 경모화 된 이후의 모발을 말한다. 모발 굵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연령, 환경, 건강상태, 탈모 진행 정도, 인종, 성별 등이 있다⁶⁾.

2. 성격의 정의

성격(personality)이란 성품(性品), 인품(人品), 품성(品性), 인성(人城), 기질(氣質), 개성(個性), 사람됨의 표현으로도 쓰이며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격, 즉 ‘Personality’는 희랍어의 Persona로부터 유래되었고, 애초에 성격이라는 말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한 개인이 취하게 되는 피상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적 성격(public personality)을 뜻한다⁷⁾.

이필석(2003)은 성격이란 생리적(生理的)으로 신경 기반적인 것이며, 마음이란 심리적(心理的) 정신 감정적인 것으로, 신경과 정신은 생리적작용과 심리적으로나 작용에서 일치하는 통일의 하나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성격은 생리적으로 신경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정신감정이며, 심리적으로 볼 때 정신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신경기분인 것이다. 이처럼 신경과 정신은 작용에 있어 일치하는 등 본원적인 것이다. 성격의 특성을 살펴보면,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소심하고 비사교적이지만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의 비율이 높으며,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기획력

은 없더라도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

3. 혈액형과 성격

노미마사히코(のみまさひこ)(1996)⁸⁾, 조기형(1985)⁹⁾, 김기석(2004)¹⁰⁾, 박성국(2004)¹¹⁾의 연구에 의하면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의 장점은 세심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공덕심이 있고 진지하며 말에 논리가 있으며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힌다. 단점으로는 남을 잘 믿지 않고 의심이 많으며 사람을 차별하고 형식적이다. AB형 소유자의 장점은 성실하며 사회적 의무감이 있고 봉사정신이 많은 편으로 담백하고 자제심이 있으며 자기 상실이 없고 취미가 광범위하며 다방면으로 능하다. 단점으로는 자주성이 부족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끈기가 부족하여 변명이나 둘러대기를 잘한다. B형 소유자의 장점으로는 상냥하며 창조적이고 지향적이며 감수성이 있고 정직하다. 단점은 개인적이고 조심성이 없고 남에게 무례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며 미련을 많이 남기고 단념이 없다. O형 소유자의 장점은 혈연중심의 집단성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하며 어떤 일이든 간에 전문화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단점은 목적을 향해 돌진하고 성취력이 뛰어난데 비하여 이러한 것이 지나쳐 강제적이고 타산적인 면만이 강조되어 타인에게 기피되는 대상이 된다.

4. 헤어스타일의 정의 및 종류

헤어스타일(hairstyle)이란 머리형이나 머리 형태, 머리 풍을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 헤어두(hairdo)라 하며 프랑스어로는 꾸아퐁르(coiffure)라고 한다¹²⁾.

1) 짧은 머리 헤어스타일

두피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90°각도로 들어서 전체 5 cm 정도로 짧게 컷트 하는 것을 말한다. 짧은 머리의 이미지는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느낌으로 발랄함을 느낄 수 있고 짧고 지적으로 느껴지며 깔끔한 스타일은 직장인의 활동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2) 단발 머리 헤어스타일

목선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컷트하는 것이며 길이

는 목선에서 10 cm 이내가 적당하다. 머리카락에 단차가 없이 일정한 길이를 말하며 선(線)의 형(形)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밑단을 일직선으로 하는 단발라인과 둥근라인, 사선라인 세 가지가 있다. 단발은 길이가 일정하므로 무거운 느낌이 들며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준다. 굵은 선에서는 강한 느낌에서 안정감을 받기도 하지만 무겁고 둔해 보이는 면과 답답한 감정을 느끼게도 한다.

3) 층이 없는 긴 머리 헤어스타일

곡선이던 사선이던 양쪽이 길이가 같아야 하며 길이는 약 20 cm 정도 이상의 층이 지지 않아 무거운 감을 주며 평온하고 완만한 느낌을 준다. 또한, 굵은 선은 강한 인상과 더불어 안정감을 주는 특징이 있으나 무겁고 둔탁함, 그리고 답답한 느낌을 준다. 길고 까만 생머리가 가장 청순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주고, 옆 가르마를 타서 단정하게 넘긴 머리는 동양적이고 이지적인 이미지를 준다.

4) 층이 있는 긴 머리 헤어스타일

Increase 레이어라하며 모발의 길이가 20 cm 정도 이상 길면서 층이 있는 스타일을 의미하며, 두피에서 90°~180°까지의 각도를 이용하여 시술한다. 이 각도에 따라 스타일이 결정되며 두발의 중량감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 이는 고급스럽고 여성적이며 발랄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예리하고 야성적인 효과까지도 연출함으로써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5) 올림머리 헤어스타일

두발을 빗어 올려 묶거나 핀으로 고정시켜 목덜미 부분 위에서 연출되어지는 모든 형태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아하고 고상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느끼게 하며 클래식한 감성이 묻어나는 여성스런 이미지이다.

즉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사회적 맥락 및 개인의 성별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헤어스타일은 영향력이 있는 외모변인의 하나로서 시대적인 문화요소와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과 인간과 인간 심리의 필요 및 미적 욕구에 의해서 선택·변화된다¹³⁾.

III. 연구방법

1. 설문조사대상

예비조사는 경기도에 있는 미용실 이용자 고객 30명을 대상으로 2006년 6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만에 걸쳐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7월30일까지 서울·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무기명 개별 면접방식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150부 배부하여 이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1부를 제외한 149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모발 채취 방법

모발 채취는 본 연구자의 미용실 고객을 중심으로 미네랄 검사 시 사용되어지는 부위인 후두부 지점을 선정하여 두피에서 떨어진 2 cm 이내 위치에서 염모와 백모를 제외한 정상모를 채취하여 관찰하였다.

2) 모발의 굵기 선정기준

한국두피건강협회(2006)¹⁴⁾, 모발대전과(2003)¹⁵⁾를 근거로 모발 표준치 기준 하에 관찰하였으며 관찰시 아람 휴비스(AHND-207-A) 모발진단기를 사용하였다. 확대율은 300배로 실시하였다.

모발(동양인)기준은 다음과 같다. 모발 굵기가 0.12 mm 이상이면 굵은 모발로, 0.08 mm~0.09 mm 정도이면 보통 모발로, 0.05 mm 이하이면 가는 모발로 구분하였다.

3.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 6문항과 대상자의 모발의 굵기와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문항 2문항,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30문항, 헤어스타일 태도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10문항을 합하여 총 48문항을 조사하였다.

이 중 성격조사에 관한 문항은 Bem단축형 BSRI (Bem Sex Inventory)를 한글로 번역한 정옥분(1986)의 질문지¹⁶⁾의 문항 중 본 연구에 필요한 30문항만

선정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양숙희(2002)¹⁷⁾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 46문항에서 10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통계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1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요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결과 검증을 위해서 각 문항에 t-test, 분산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 유의 수준은 $p < .05$, $p < .01$ $p < .001$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모발의 일반적인 굵기와 형태

모발의 일반적인 굵기와 형태에 따른 결과는 <표 1>과 같다.

굵은 모발의 소유자는 직모 형태가 39.5%로 나타났다. 보통 모발의 소유자는 곡모가 52.3%로, 가는 모발의 소유자는 28.9%로 직모 형태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즉 이는 모발의 일반적인 굵기와 형태에서 굵은 모발의 소유자와 가는 모발의 소유자의 모발의 형태는 직모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모발의 소유자의 모발의 형태는 곡모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직모의 소유자는 적극적이며 성격이 급하므로 미용 시술서비스 시간을 단시간 내에 단축시켜야 하며, 곡모의 소유자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완고한 성격이

<표 1> 모발의 일반적인 굵기와 형태 (n=149)

모발 형태		직모	곡모	Row total(%)	χ^2 (df)
모발 굵기	n %				
굵다	n %	15 39.5	23 20.7	38 25.5	6.517* (2)
보통이다	n %	12 31.6	58 52.3	70 47.0	
가늘다	n %	11 28.9	30 27.0	41 27.5	
Column total (%)	n %	38 25.5	111 74.5	149 100.0	

* $P < 0.05$

<표 2> 모발의 굵기에 따른 혈액형

(n=149)

모발 굵기		혈액형				Row total (%)	χ^2 (df)
		A형	B형	AB형	O형		
굵다	n	13	6	5	14	38	12.463 (6)
	%	21.0	16.7	22.7	48.3	25.5	
보통이다	n	29	20	13	8	70	
	%	46.8	55.6	59.1	27.6	47.0	
가늘다	n	20	10	4	7	41	
	%	32.3	27.8	18.2	24.1	27.5	
Column total(%)		n	62	36	22	29	149
		%	41.6	24.2	14.8	19.5	100.0

어서 미용 시술 시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하고 꼼꼼한 미용 시술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모발의 굵기에 따른 혈액형

조사대상자의 모발의 굵기와 혈액형의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굵은 모발의 혈액형은 O형이 48.3%로 나타났으며, 보통 모발의 혈액형은 AB형이 59.1%로 나타났고, 가는 모발의 혈액형은 A형이 32.3%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굵은 모발의 혈액형은 O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보통 모발의 소유자의 혈액형은 AB형으로 나타났고, 가는 모발소유자의 혈액형은 A형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머리카락이 굵은 사람은 강직한 스타일로 모든 일에 열의를 다하는 성실함이 돋보이나, 반면 머리카락이 가는 사람은 소극적인 성격으로 차분하고 온화하지만 인내력이나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조명숙(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O형과 A형 특성에 맞게 미용시술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성격유형의 하위요인

모발의 굵기와 형태에 따른 성격유형의 하위요인을 밝히기 위해 총 30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하기에 앞서 측정 자료가 요인분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tlett의 단위행렬(구형성)과 KMO의 표본 적합도를 점검한 결과 각각 $\chi^2=1780.859$ 과 0.842로 나타났고, 공통성

(communality) 등을 점검한 결과 특정변수 0.729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4개의 문항이 제거되었고 이 결과 성격유형은 3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3>에서 요인 1은 ‘다정하다, 동정심이 강하다, 이해심이 있다, 인정이 있다, 상한 기본을 잘 달래준다, 따뜻하다, 상냥하다, 아이들을 매우 좋아한다, 부드럽다’의 9문항으로 구성되어 ‘여성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지배적이다, 강경하다, 공격적이다, 단호하다, 독립성이 강하다, 개성이 강하다, 관습적(보수적)이다, 자기소신을 지킨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다, 모험심이 강하다, 지도력이 있다, 재치가 있다’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남성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믿을만하다, 양심적이다, 진실하다, 자부심이 강하다, 변덕스럽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양성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모두 0.729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모발의 굵기에 따른 성격유형

조사대상자의 모발의 굵기에 따른 성격유형의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발의 굵기에 따른 성격유형에서 굵은 모발의 소유자와 가는 모발의 소유자의 성격유형은 양성성의 성격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모발의 소유자의 성격유형은 여성성인 성격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

즉 이는 굵은 모발 소유자와 가는 모발 소유자의 성격유형이 양성성으로 나타나 결과를 토대로 믿을만하며, 양심적인 양성성 특징에 맞는 미용 시술서비

<표 3> 성격유형의 하위요인

항 목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공통성
따뜻하다	.828	.096	.057	.698
다정하다	.817	.047	-.072	.674
인정이 있다	.799	.142	.227	.710
상냥하다	.783	.012	.127	.630
이해심이 있다	.740	.176	.215	.625
부드럽다	.725	-.055	.203	.570
상한 기분을 잘 달래준다	.628	.222	.179	.475
동정심이 강하다	.585	.235	.110	.409
아이들을 매우 좋아 한다	.490	-.041	.239	.299
지배적이다	.101	.737	-.148	.576
강경하다	.088	.709	.287	.592
공격적이다	-.032	.665	-.247	.504
단호하다	-.294	.614	.211	.509
독립심이 강하다	.119	.578	.432	.536
개성이 강하다	.096	.557	.223	.369
관습적이다	-.051	.523	-.013	.276
자기소신을 지킨다.	.226	.508	.233	.364
다른 사람의 관심에 민감하다	.293	.500	-.198	.375
모험심이 강하다	.214	.487	.208	.327
지도력이 있다	.329	.476	.329	.443
재치가 있다	.382	.467	.160	.389
믿음만하다	.282	.006	.767	.668
양심적이다	.182	.149	.747	.614
진실하다	.258	.122	.688	.554
자부심이 강하다	.207	.263	.518	.381
변덕스럽다	.003	.023	-.514	.265
고유치 설명 분산(%)	5.445	4.253	3.135	
누적분산(%)	20.943	16.359	12.057	
신뢰도	20.943	37.302	49.359	
	0.889	0.835	0.729	

스를 하면 좋을 것이며, 보통 모발 소유자의 성격유형은 여성성으로 나타나, 다정하고 따뜻한 여성성 특징에 맞는 미용 시술서비스를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5. 모발의 굵기에 따른 헤어스타일 태도

1) 굵기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모발의 굵기에 따른 헤어스타일 태도의 조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굵은 모발에 따른 헤어스타일 만족도에서는 만족이 52.6%로 나타났고, 보통 모발에 따른 헤어스타일 만족도에서는 보통이 55.7%로 나타났으며, 가는 모발에 따른 헤어스타일 만족도에서는 보통이 53.7%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굵기에 따른 헤어스타일

모발의 굵기에 따른 헤어스타일 결과는 <표 6>과 같다.

굵은 모발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헤어스타일은 짧은 커트머리가 50.0%로 높게 나타났고, 보통 모발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헤어스타일은 층이 있는 긴 머리가 45.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는 모발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층이 있는 긴 머리 스타일이 58.5%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

즉 이는 모발 굵기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다르게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굵은 모발의 소유자는 짧은 커트머리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모발의 소유자는 층이 있는 긴 머리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는 모발의 소유자는 층이 있는 긴 머리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발의 굵기에 따른 성격유형

(n=149)

모발 굵기		성격유형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M	S. D	M	S. D	M	S. D		
굵다	(n= 38)	3.71	0.77	3.21	0.62	3.95b	0.70		
보통이다	(n= 70)	3.53	0.79	3.30	0.75	3.47a	0.70		
가늘다	(n= 44)	3.54	0.95	3.07	0.76	3.56ab	0.92		
F		0.654		1.282		4.921			
P값		0.522		0.281		0.009**			

**P<.01

<표 5> 굵기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만족도

(n=149)

헤어스타일의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Row total(%)	$\chi^2(df)$
모발 굵기						
굵다	n	20	13	5	38	6.097 (4)
	%	52.6	34.2	13.2	25.5	
보통이다	n	21	39	10	70	
	%	30.0	55.7	14.3	47.0	
가늘다	n	14	22	5	41	
	%	34.1	53.7	12.2	27.5	

<표 6> 굵기에 따른 헤어스타일

(n=149)

헤어스타일		짧은 커트머리	단발 머리	층이 있는 긴 머리	층이 없는 긴 머리	올림 머리	Row total(%)	$\chi^2(df)$
모발 굵기								
굵다	n	19	11	8			38	22.583** (8)
	%	50.0	28.9	21.1			25.5	
보통이다	n	24	9	32	4	1	70	
	%	34.3	12.9	45.7	5.7	1.4	47.0	
가늘다	n	6	6	24	4	1	41	
	%	14.6	14.6	58.5	9.8	2.4	27.5	

**P<.01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발의 굵기에 따른 성격유형과 헤어스타일 태도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써 만족스러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경기도·서울에 소재한 특정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발의 굵기에 따른 혈액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는 굵은 모발의 소유자는 비교적 O형이 많았으며, 가는 모발의 소유자는 A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 굵기에 따른 성격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는 모발의 굵기에 따른 성격유형에서 굵은 모발의 소유자와 가는 모발의 소유자는 양성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모발의 소유자는 여성성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모발 굵기에 따른 헤어스타일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는 모발 굵기에 따른 현재 헤어스타일 태도에서는 굵은 모발의 소유자는 짧은 커트머리와 단발머리로 나타났으며, 가는 모발의 소유자는 층이 있는 긴 머리, 층이 없는 긴 머리, 올림머리로 나타났다.

현재 미용실은 포화상태에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헤어날 줄 모르는 불경기속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의 증대를 기대하려면 더

욱 과학적이고 진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객 모발의 굵기나 형태 관찰로 고객의 성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고객에게 맞는 미용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고객감동으로 이어지리라고 본다. 이는 곧 고객의 재방문으로 이어져 다른 업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케팅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김방순, 조미경, 장승호(2000). 털에 대해 알고 싶은 99가지. 서울: 명상, p.135.
- 2) 조명숙(2001). 여성의 모발류에 따른 관련 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20.
- 3) 이필석(2003). 성격. 서울: 알림, p.41.
- 4) 홍숙기(2002). 성격 심리(상). 서울: 박영사, p.2.
- 5) 한국두피건강협회 (2005). Trichologist 교재, p.2.
- 6) 한국두피건강협회 (2005). '앞의 책', pp.26-28.
- 7) 이필련(2004). 성격 유형에 따른 음악학습 형태와 지도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8) 能見正北古(1996). 혈액형과 인간관계. 신정식역. 서울: 보성, pp.11-51.
- 9) 조기형(1985). 혈액형별 체격과 운동능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10) 김기석(2004). 성격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씬들 선수들

- 의 경쟁불안의 경기력이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 11) 박성국(2004). 성악 진로교육을 위한 혈액형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22.
 - 12) 이정희(2005). 여대생의 헤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디자인 선호도.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13) 오인영(2006).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TV 뉴스 앵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1.
 - 14) http://btbhair.com/isha/index.php?content_code=association&sub_cod=01. 2006. 10. 9.
 - 15) 정태봉, 김한식, 고운하, 전상구(2003). 모발대전과. 서울: 모발과학협회, p.51.
 - 16) 김현화(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 17) 양숙희(2002).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형태와 관련 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0-53.